

10월호

Contents

활동가여량강화 워크숍	2
(자립생활주택) 디즈니 온 아이스	4
(개별ILP) 남산타워와 용산상가 체험기	6
나의 실습이야기	8
장애와 문화생활	10
염전노예가 왜 말인가!!	12
장애인과 과소비심리	14
나의 노후대책	16
이달의 정보	18
장애인파파라치	20
이달의 시	22
회원가입	23
광고	24



활동가역량강화 워크숍

허성현



2015년 10월 07일부터 08일까지 1박 2일간 우이동 월벽타운에서 활동가역량강화워크숍이 있었다. 이 워크숍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활동가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연대의식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초청인사로 강우진 송의여대 가족복지학과 교수와 나눔센터의 김창화 소장님, 강

북센터의 이지숙 활동가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선배로서 소중한 경험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이번 활동가역량강화 워크숍은 시간에 쫓겨 충분한 준비를 못했던 지난 해와는 달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획하기 전 어떤 방식으로 워크숍을 진행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회의가 있었고, 토론회의 주제 선정, 외부인사의 초청, 토론회의 진행 방법, 발언 시간의 기준 등 세심한 부분 까지 신경을 써 준비 했다.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

3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된 일정은 1부 파트는 <장애와 자존감>이란 제목으로 활동가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2부 파트는 외부 초청 인사에 의한 강의가 있었다. 3부 파트는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 됐다.

1부 파트에서는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동료상담과 권익옹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2부 파트에서는 장애인운동에 대한 대선배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갖으며 연대의식 강화와 결속력을 다졌다.

3부 파트는 친교의 시간으로 그동안 일에 쫓겨 여유를 갖지 못했던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노래 부르며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통해 활동가로서의 동지의식과 새로운 에

너지를 충전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번 활동가역량강화워크숍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워크숍 장소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점이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 워크숍장소가 위치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불려도 제 때 오지 않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불편함을 잘 아실 거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갈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이동권만이 아니다. 아무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극히 드물고 제한적이어서 활동장소대여에 어려움이 많다. 누구나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와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번 활동가역량강화워크숍을 마무리 하며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누구도 배제 당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모두 모두 파이팅~~~!!



[자립생활주택] 디즈니 온 아이스

박남주



10월 체험홍 문화체험은 목동아이스 링크에서 디즈니 온 아이스를 관람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니 거의 매 공연마다 매진이라 오전 11시 공연을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양균 선생님을 모시고 공연장에 도착해서 보니 어마어마한 어린이 군단이 아이스링크 장

앞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관람을 하러 온 인파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친인척, 할머니 등의 가족과 함께 온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나온 그룹은 각자가 소속된 원복을 입고 선생님들을 따라 입장을 하였지만 부모님 및 친인척 가족과 함께 온 아이들 중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엘사 드레스나 인어공주, 백설 공주 옷을 입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공연장 주변으로 스텝들이 올라프(겨울왕국의 눈사람 캐릭터) 모양의 컵에 담긴 슬러쉬와 미키 가방에 든 팝콘, 엘사와 안나 인형, 눈결정 모양의 요술봉 등 다양한 기념품과 간식거리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강북센터 자립생활주택 가형 거주자이신 정양균씨는 나이가 쉰이시지만 디즈니 캐릭터를 좋아하신다며 가판대에 진열된 인형들을 연신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은근히 올라프 캐릭터 컵에 담긴 슬러쉬를 먹고 싶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1층 로얄석 정중앙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디즈니 캐릭터들을 생생하게 재탄생시킨 무대분장과 섬세한 작업공정을 거친 듯 한 의상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눈을 호강시켜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캐릭터인 도널드와 구피,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가 애니메이션에서 막 튀어나온 듯 한 모습으로 나와 사회를 보는 것으로 1부가 시작되었고 조명이 터질 정도로 끔찍한 노래실력과 영망진창인 댄스실력을 보유한 신데렐라의 두 언니들의 공연 때문





에 마음상한 도널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인어공주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막내 인어공주인 아리엘공주와 왕자의 사랑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정교한 의상과 정말 캐릭터와 똑같은 배우들이 피겨스케이팅을 하며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장관이어 유치하고 뻔 한 사랑이야기에

꼭 빠져들었습니다. 1부의 두 번째 이야기는 라푼젤이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애니메이션으로 본 디즈니 공주들 중 라푼젤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역할을 맡은 배우는 별로 예쁘지 않았습니다.

1부가 끝나고 약 15분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스링크장이라서 조금 추운 탓에 따뜻한 바깥에서 햇볕을 조금 쬐고 들어왔습니다. 2부의 첫 이야기는 미녀와 야수였습니다. 분장도 분장이지만 애니메이션 속 벨과 똑같이 생긴 외모의 배우가 나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벨이 제일 예뻐했다는 의견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겨울왕국 속 주인공들이 등장하며 2부도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말괄량이 천방지축 안나공주와 상처주기 싫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얼음공주 엘사 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한편의 피겨 뮤지컬로 감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캐릭터들이 모두 나와 피겨 장을 돌며 사진을 찍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저희 일행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나와 공연장 옆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식당에 들어가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없어서 의외였는데 역시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들과 가족들로 북적대기 시작해서 일찍 나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도 생각보다 맛있었고 공연도 사실 제가 디즈니를 싫어하는데 정양균씨가 좋아하셔서 내색도 못 하고 공연을 관람한 것 치고는 대 성공적으로 관람했다는 평가입니다.



[개별ILP] 남산타워와 용산상가 체험기

신건구



강북센터에서 진행하는 개별ILP에 참가한 도어느덧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만 지내던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지만 소장님과 담당 선생님의 조언과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개별ILP에 참가해 처음으로 받은 체험비로 제가 한일은 증명사진을 찍고 영화 관람과 불고기파티를 한일이었습니다. 불고기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제가 불고기 파티를 열어서 식구들과 할보선생님을 대접 한 것도 좋았지만 모두들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해 주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활동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한 가지, 제가 핸드폰이 없어 연락하기가 힘들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는 제 4차 활동 때까지도 이어졌었는데, 갑작스런 변화가 무서운 제가 계속 영화 관람과 불고기파티를 고집해서 항상 같은 계획을 세워서 이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제가 자조모임이나 교육 등을 받으러 다니기에는 제약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2015년 1월, 선불요금 납부의 조건으로 나의 첫 핸드폰을 개통하고 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휠체어 바퀴 튜브도 교체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체험도 받았습니
다. 고장 나서 빼고 다닌 지 오래되
었던 휠체어 발판도 바꾸고 담당자님
과 한강 인조섬인 세빛섬까지 다녀오
니 점차 자신감이 더 붙는 것을 느꼈
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난생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도 가보고, 중간에 활보선생님이
바뀌게 되어 새로운 선생님과 친목을
다질 겸 서울숲 공원에도 나들이를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경험은 롯데월드로 나들이를 가서
놀이기구 타지는 못했지만 맛있는 것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돌아온 경험이었습니
다.

이제 2회를 남겨놓고 있는 현재, 남산타워와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
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도 해보고 자립생활의식에 대한 고민을 나눌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도전의식이 높아진 것은 개별ILP의 체험이 크
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취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취
업을 해야 독립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개별자립기술훈련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나의 실습이야기

장승현



8월부터 시작한 나의 실습생활은 10월 중순인 지금 15번째 마지막 실습을 앞두고 있음에 나는 시원하고도 섬섬한 감정을 느낀다. 처음에 실습을 열심히 하리라는 결심과 마음가짐도 직장생활과 같이 하다 보니 생각과 다르게 실습에만 집중을 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 실습을 앞두고 실습 일정 및 일지 작성에 대하여 슈퍼비전을 제공 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실습으로 인해 기존에 하던 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나의 생각이 한층 더 깊이 있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생각이 전환되었음을 느꼈으며, 나 스스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마음을 가다듬게 되었다.

이번 실습을 통해 그동안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장애 유형과 그에 알맞은 적절한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해 생각해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인권과 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강북장애인자립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의 실습을 통해 이제 나는 내 삶에 대해, 사회복지사에 대해 한층 더 깊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음을 느낀다.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발로 뛰고,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지, 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과 실습 기회를 마련해 주신 강북센터에서의 활동가 선생님 들께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장애인 복지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이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는 물론 자립센터의 모델로 앞서 가는 강북센터에서 실습생활을 끝까지 잘 마무리 수 있게 되어 나 스스로 자랑스러웠고, 훌륭한 슈퍼바이저님과 팀장님들, 직원 분들의 지도와 배려가 있었기에 현장실습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끝까지 잘 지도해 주시고 격려로 부족한 실습생들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주신 모든 센터 관계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강북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장애와 문화생활

허성현



이미지 출처- <http://www.irepublic.kr>

의 개성과 취향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각자의 답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문화란 무엇인가?

왜 영화, 연극, 뮤지컬, 미술 감상, 음악 감상, 여행 기타 등 등……. 일이 아닌 여가 활동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다.

재미있어서, 즐거워져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어서,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혹은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자의 얼굴생김이 다른 것만큼이나 각자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고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여갈 때 우리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된다. 우울할 때는 코믹 영화를 보며 기분전환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클래식 음악회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화되는 느낌의 여유를 찾을 수도 있다.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싶어 영화, 뮤지컬, 연극 등을 함께 하며 둘만의 달달함의 행복감을 느끼고자 할 수도 있다.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뮤지컬이 됐든 기타 것이 됐든 자신의 취향과 형편에 맞춰 장르를 선택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행복한 감정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문화향유권이야말로 인권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맞는 말이다. 인간의 욕구 중 생리적 욕구가 아닌 즐거움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한 차원 높은 것이므로……。 그렇다면 누구나 다 갈망하고 누리는 문화 향유 권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내 경험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의 경우 스물세 살에 전동휠체어를 받아 세상에 나왔다. 그 전에는 보행 장애로 집과 학교로 내 물리적 이동공간이 제한 될 수밖에 없었고, 학생의 신분에도 맞게 학업에 전념하느라 문화생활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러던 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알게 되었고, 전동휠체어 나눔행사 때 전동휠체어를 받은 이후로 내 이동공간은 집과 학교가 아닌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넓어졌다. 그 후 나는 거의 미친 듯이 문화생활을 했다. 영화를 비롯하여 연극, 뮤지컬, 스포츠, 매직 쇼, 콘서트, 오페라 등 각종공연을 관람하고, 번지점프, 유람선 타기, 노래방체험 등을 하고 놀이동산도 다녔다. 거기다 영상촬영기술을 배워 직접 다큐도 제작하는 등 능동적으로 만들고 직접 참여하는 문화생활도 했다. 그 때 당시는 그저 집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내 활동공간이 넓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재미없다는 영화도 꿀 송이처럼 달고 재미있었다.

이때의 내 문화생활은 즐거움, 재미를 만끽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고, 공연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확대 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 무엇보다 내 자아의식의 지평을 넓힌 시기이기도 했다. 공연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30분 이상 전동휠체어로 공연장을 이동하고, 상영관의 가파른 계단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동휠체어를 밖에 세워두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장애와 문화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을 보내며 사회활동과 사회문제, 장애인이 활동 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기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시기이기도 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문화생활에서는 성취감도 크고,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캠코더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편집기술을 익혀 내가 원하는 다큐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선 내 문제를 직접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할 수 있어 뭐라 말 할 수 없이 뿌듯했다. 또한 한 차원 높게 역량강화 된 내 모습을 보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지금은 직접 배우고, 만드는 문화생활은 못하지만 공연 마니아인 후배와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비롯하여 각종 공연을 본다. 이제는 단순한 감상과 해방감 차원을 넘어 그 작품을 직접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장애활동가들의 꾸준한 활동으로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확충, 장애인콜택시 증대 등으로 공연장까지 이동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갈 길이 멀다. 누구나 차별적인 요소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공연장의 편의시설과 지역 환경 기반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하는데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염전노예가 왜 말인가!!

김소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전 노예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국감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고,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갈 곳 없는 염전노예 피해자들은 노숙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염전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염전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정신지체장애인들이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제대로 된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기에 어려워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외신이 생지옥이라고 표현할 염전 노예사건의 조사가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염전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염전이 영세한 곳이 많아 염전 주인들이 착취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다"며 "단속에만 매진한 것에 반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서울 강북을) 의원이 전남경





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인권수사팀에 장애인 인권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남 경찰은 염전 노예 사건 이후 노동청과 정기적으로 섬 지역 인권 유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그 해 8월까지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임금을 착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129명을

적발했다. 유대운 의원은 "전문가가 아닌 경찰관들의 1~2번 면담으로 인권유린 등의 위법행위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장애인 인권단체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상시적으로 염전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전피해자들을 "구출 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생활대책을 마련해주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입으로 민주주의라고 말만 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사회가 안타깝다……, 사회와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염전노예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따뜻한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더 이상 염전노예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람 한다.



가사자료출처- [국감현장] <http://news1.kr/articles/?2450521>

사진 출처- <http://www.ablenews.co.kr>, <http://jtbc.joins.com>

[글은 본 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과소비심리

이하용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보상받기 위한 심리로써 과소비에 빠지기 쉽다.

오늘날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의식주만 해결하면 된다는 과거의 장애인과 달리 풍부한 물질과 복지를 지원을 받고 있다. 즉, 이들은 과거 장애인 세대보다 대중 매체를 통한 소비 폭이 넓으며, 예전 세대의 장애인들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이라던 지 기초생활수급이라던 지 이러한 복지혜택으로 과거의 장애인들 보다는 많은 보장을 받음으로써 과소비에 빠지기 쉬워졌다.

<http://www.irepublic.kr> 이것은 ‘나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

또는 ‘다른 장애인보다 잘났고 돈도 있고 힘도 갖고 있다.’라는 과시 욕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시 욕구와 충동구매를 하고 있는 몇몇 장애인들로 인해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런 사회의 영향은 나와 나의 친구들에게도 과시욕구와 과소비를 안겨주었다. 또한 이들의 인터넷 쇼핑·무분별한 카드사용은 소비액을 증가하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장애인들이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들은 소비생활은 커진 반면 소비에 관한 지식이나 경제관념이 부족하므로 이들의 무분별한 소비생활은 빈민층으로 가기 쉬운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 예전보다 소비생활이 편리해 짐 해 따라 소비가 손쉬워졌고,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지갑은 텅 비어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유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끝없이 쏟아지는 광고와 할인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한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쇼핑 중독자의 뇌를 검사한 결과 특이하게도 쇼핑을 할 때에 부교감 신경 수치가 올라간다고 한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는 사이 쇼핑중독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쇼핑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알뜰하고 똑똑한 쇼핑이 답이다. 똑똑한 소비생활 방법의 첫 번째는 “세일·할인 등의 상술에 속지 말라는 것.” 가령 30% 세일 때 물건을 구매하면 30%를 아낄 수 있지만, 물건을 사지 않으면 100%를 아끼는 것이다. 사람은 같은 크기의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쉽게 말해서 100만원의 수익에 기쁨보다 100만원 손실에 대한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 심리를 활용하여 할인 마케팅이 매년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할인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얼마를 더 싸게 구매해서 이득을 보느냐" 라는 것보다 "얼마나 덜 손해를 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 구매행동이 과소비를 피하는 의사결정과정이다. 할인하는 제품을 보고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필요할 때는 비쌀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 내고 있진 않은가?

똑똑한 소비생활 방법 두 번째는 "현금 사용하기"이다. 신용카드가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장애인들은 카드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과소비를 키울 수 있고,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접어들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장애인의 쇼핑중독을 막을 수 있고, 통장 잔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금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현금사용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체크카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현금사용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소비를 할 때 마다 내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고, 똑똑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기에 현금사용과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 추천한다. 국가에서도 이제 신용카드 혜택을 줄이고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한다고 하니 현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현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소비생활을 생활화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똑똑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올바르게 소비하는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은 본 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과 노후대책

전난희



의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어느덧 100세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노후대책자금일 것이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에 건강이 보장이 된다면 문제시 될게 없지만, 자기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을 하기는커녕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할 것이고, 자식들에 눈치를 봐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irepublic.kr>

노후대책자금은 노인이 되어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미리미리, 차곡차곡 해 두었다가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늙었을 때 여유롭게는 아니어도 자식들에게 눈치 안 받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이 영위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요즘은 비장애인들도 노후대책을 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자 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물가상승과 주택자금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노후대책자금은 자꾸 뒤로 미뤄지게 사실이다.

이제껏 장애인의 노후생활이나 노후준비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장애인 역시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며, 이제는 정부가 일반 인구집단에서 장애인 인구로 대상의 초점을 이동하여 장애인의 노후 준비 실태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노년기에 빈곤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경제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에 함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노후보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의 노후준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장애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장애인

련 특성, 건강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 비율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장애인의 인구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건강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 방법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사적 노후준비, 공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건강 및 활동요인 변수 중에서는 만성질환여부와 타인의 도움필요정도가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선택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방법으로 사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낮을수록 사적 경제적 노후준비방법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적 노후준비 차원에서는 장애인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일자리증대가 요구된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장애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며,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제도 역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노후 준비는 노년기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기간을 거쳐서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장애로 인한 빈곤화 문제에 대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체계가 마련되고 소득보장 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은 현재로서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점차적으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수립 이외에 사적 노후보장 준비 방법을 찾고 생애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건강하지 못할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장애인 인구집단 내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또한 사회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은행이나 비영리단체가 실시하는 재무교육을 장애아동과 장애 청소년에게도 제공하는 방안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집단의 경우 일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노후까지 빈곤이 유지되거나 빈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차원에서 의료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와 결정요인, 조정아(숭실대학교)

[글은 본 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달의 정보

김소연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베이비부머교실 “꽃보다 중년” 참여자 모집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월 17일(화),18일(수),19일(목). 13:00-17:00
- 장소 :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 대상 : 50대 성인 25명(선착순)
- 내용 :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여가, 가족관계, 재무교육 등
-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접수

출처- <http://www.familynet.or.kr>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예비부부교실 “우리, 결혼 할까요” 참여자 모집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0월 17일,24일(토). 13:00-17:20
- 장소 : 강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 대상 : 예비부부, 현재 교제중인 커플 15쌍(선착순)
- 내용 : 기질차이 점검, 갈등해결을 위한 맞춤 대화법, 결혼체크리스트 및 재무 계획
- 신청 : 전화 상담 후 신청서 접수

출처- <http://www.gangbuk.go.kr>

11월 강북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15년 10월 20일(화) 09:00 ~ 마감시까지 선착순 접수
- 교육장소 : 강북문화예술회관 2층 정보화교육장, 솔샘문화정보도서관 3층 정보화교육장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www.gangbuk.go.kr/infoedu/index.do>),
전화접수 (컴퓨터기초, 인터넷기초, 스마트폰기초 - 전화접수 가능)
- 수업기간 : 4주 과정(주 2회 수업)
- 교육과정 : 컴퓨터왕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등
- 교육 접수 및 문의 : ☎(02)3141-2600

출처- <http://www.gangbuk.go.kr/infoedu/index.do>

10월 17일 강북구 대규모 나눔장터 "꿈의 장터" 개장 안내

- 꿈의 장터란?
 - 주민들이 직접 중고물품을 판매하거나 물물교환하는 대규모 나눔장터
- 개최일시 : 2015. 10. 17(토) 11시 ~ 16시
- 4/25, 5/16, 6/20, 9/19, 10/17 연 5회 개최
- 6/2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으로 인한 취소
- 개최장소 : 북서울 꿈의 숲(아트센터 앞 광장)
- 신청기간 : 2015. 10. 6.(화) ~ 10. 14.(수)
- 신청대상 :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 및 단체
- 신청방법 : 불임의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강북지역자활센터로 제출
- 제출방법 : 전화 문의 후 e-mail, fax로 신청
- 전화문의 : 강북지역자활센터(☎982-1414)
- e-mail : gbjahwal@hanmail.net
- F A X : 02)983-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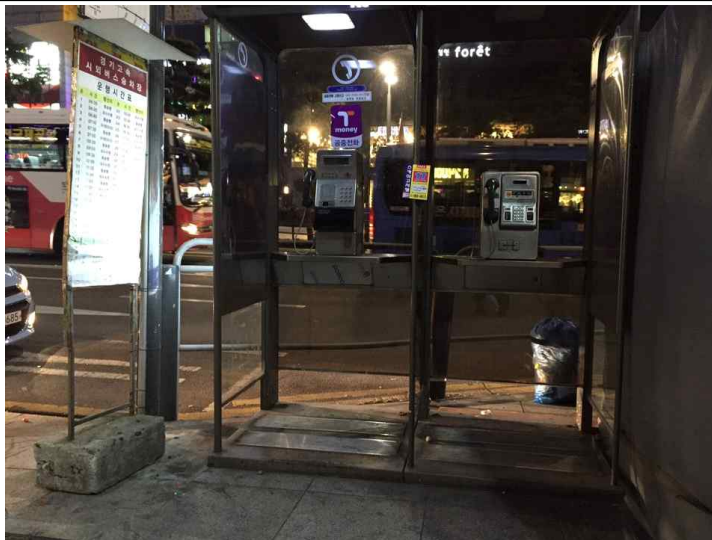
출처- <http://www.gangbuk.go.kr>

장애인파파라치

이하용



번1동 가든타워 1층 주차장 장애인 주차 공간 앞에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되어 있어 장애인 차량이 들어와도 주차할 수 없다.



공중전화 박스에 낮은 턱이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보도블록이 깨져있어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도 보도 시 매우 위험하다.



횡단보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길을 건너가기 매우 불편하다.

가을이 오면

용혜원

가을이 오면
가을빛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가을비에 젖어 가을 색으로 물든
가을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어도 좋아한 사람
좋아한다는 말은 없었어도 사랑한 사람
그리움은 그리움일 때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오면 내 마음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빛 사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15년 10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두용 김용자 김은순 김석현 김종민 김종환 김현실 김태환
권윤정 곽상봉 곽광현 박계형 박시연 박원배 박민숙 박동열 배소영
손연숙 이광섭 이승준 이영석 이영숙 이영훈 이지숙 이태연 이하용
안병훈 임상욱 우의정 오재준 윤두선 예성호 장민정 전난희 정주영
정종남 최윤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 납 업 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 납 목 적	회원회비
대 표 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906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illegible]

한일국제세미나 “지적장애인과 자립생활” 참석 안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5년 12월 11일(금) 오후 2시, ‘한일국제세미나 지적장애인과 자립생활’을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15년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자립생활의 방향과 일본 및 국내의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개최 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세부사업명 : 한·일 국제세미나
- 사 업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14~17시
-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 패 널 :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야스이(일본 피플퍼스트 아이치
활동가, 지적,신체,언어장애인당사자),
우희재(아름다운행동CIL, 지적장애인당사자)
- 좌 장 : 정종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 상 : 장애인당사자, 장애관련단체 및 사회복지 종사자
- 인 원 : 100명